

목포 가톨릭 성지 조성사업 순조

레지오 마리에 기념관
10월 완공 앞두고 모습 드러내
대성당 등 2018년 마무리
성지순례 등 새 랜드마크로

목포 가톨릭 성지 조성사업의 핵심인 레지오 마리에(Legio Mariae 가톨릭 평신도 봉사단체) 기념관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가톨릭 목포성지 조성은 산정동 구 가톨릭병원 일원 부지 2만9279㎡에 연면적 1만4980㎡ 규모로 오는 2018년까지 총 사업비 462억원(전주교 241억, 국·도·시비 221억)을 들여 성 마카렐 기념 대성당, 성직자 동, 레지오 마리에 기념관(이하 나눔 봉사기념관) 등을 건립하게 된다.

전주교 측에서는 성당 및 부속시설, 성직자 동, 나눔 봉사기념관을 건립하고, 목포시는 나눔 봉사기념관 보조사업과 도시 기반 시설을 조성한다. 본 협약 체결 후 6년이 지난 2015년 9월 변경협약을 체결하면서 본격화했다.

26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사업비 152억 원이 투입되는 나눔 봉사기념관은 연면적 8153㎡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되며, 지난 2016년 4월 착공돼 오는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기념관 보조예산으로 국비 25억5000만원, 도비 10억2000만원, 시비 15억3000만원 등 총 51억원을 교부했다.



가톨릭 목포성지 조성사업 중 핵심인 레지오 마리에 기념관이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이곳은 지난 1935년 가톨릭 평신도 봉사단체 발상지로, 550만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기념비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커 향후 성지순례의 메카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목포시는 또 총 170억원을 들여 성지 주변 3곳에 대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도 추진한다. 35억원이 투입된 산정초~등대 식육점간 도로공사는 완료됐고, 앞으로 등대식육점~대복정 구간과 복음교회~목여고 구간을 확충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비 12억원(국비 6억, 도·시비 6억)을 들여 목포 천주교 구교구정(등록문화재 제513호) 건물 내·외부 보수와 함께 옛 골동반 병원 기숙사로 사용될 당시 설치됐던 칸막이를 제거하는 등 원형 복원공사를 마무리했다. 이곳은 향후 가톨릭 목포성지 사업과 연계한 역사

문화관으로 활용된다.

특히 나눔 봉사기념관이 의미 있는 것은 1935년 가톨릭 평신도 봉사단체 발상지로 550만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기념비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또 전국 각 성당마다 레지오 액션 단체를 보유하고 있고 가입인 신도만 55만명에 달해 관광자원으로써 가치는 물론 관광중심도시 목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산정동 목포성지를 다녀간 방문객은 일반 신도 성지순례 2000명, 레지오 마리에 성지순례 3000명, 피정 500명, 선교행사 700명 등 6700명을

비롯해 일반인 관광객 1500명 등 총 8200명으로 집계됐다.

산정동성당 관계자는 “오는 10월 나눔 봉사기념관이 완공되면, 방문객 수가 올해 7만여 명에 이르고 내년에는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가톨릭 목포성지 조성 사업이 오는 2018년 말 모두 마무리되면 목포가 성지순례의 메카로 급부상해 침체한 인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전남형 일자리 혁신프로젝트 본격 추진

목포고용청, 전남도 등과 지원약정서 체결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최근 전남도, 사업수행기관 등과 ‘전남형 일자리 지역혁신프로젝트’ 지원약정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남형 일자리 지역혁신프로젝트”의 올해 국비지원액은 총 42억원으로, 이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대 사업비다.

“일자리 지역혁신프로젝트사업”은 지역의 전략적인 고용창출을 목표로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가 협력해 일자리사업 발굴, 지역구조조정업종 근로자 지원, 지역대표 산업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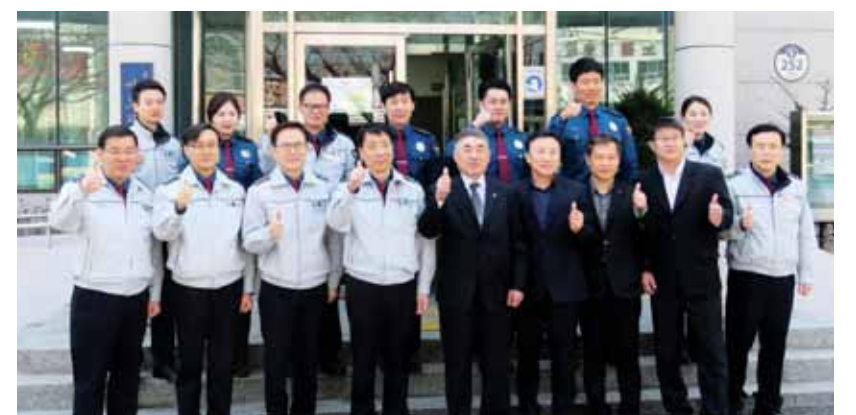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올해 추진하는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고용위기 극복대책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사업 ▲에너지밸리(전략산업) ▲에너지ICT(전략산업) ▲농수산 바이오산업(전략산업) 등 6개 분야 19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정영상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목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혁신프로젝트를 전남도와 함께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가 협력해 일자리사업 발굴, 지역구조조정업종 근로자 지원, 지역대표 산업 경쟁력 강화

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목포 이로파출소 ‘베스트 파출소’ 선정



5대범죄 60% 감소 등 성과

목포경찰서 이로파출소가 전남 산하 205개 지구대·파출소 중에서 ‘베스트 파출소’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베스트 선정은 박성복 이로파출소장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가 절도 예방, 교통사고 예방, 주민 참여형 공동체 치안 등 지역주민 맞춤형 순찰 활동을 적극 펼친 결과물이다.

이로파출소 관내는 목포의 대표적 회 의원은 “관광객들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해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과를 냈다.

실제 이로파출소는 원로 밀집지역에 대한 심야시간대 절도 예방 순찰 강화와 함께 사고가 빈번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펼쳤으며, 지난 2월 기준 절도 검거율 40%를 기록하고 동기간 대비 5대 범죄 발생 60% 감소, 교통사망사고 0건으로 타 파출소에 비해 월등한 성과를 거둔 점이 호평을 받았다.

강성복 전남경찰청장은 “베스트 파출소 인증패 개최” 행사에서 “앞으로도 맞춤형 치안활동과 공동체 치안 활성화로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목포해양대 드론 일자리 창출

목포해양대가 해양드론 산업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업단을 발족하고 드론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목포해양대 해양드론 산업 일자리 창출 사업단(단장 노창근 교수)은 “드론 조종교육은 물론 조립·정비 등 중·고급 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드론서비스산업 관련 우수인력을 육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육성된 우수인력들은 취업캠프, 취·창업 멘토링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드론 기업에 취업과 드론 서비스 산업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업단은 전망했다.

한편 사업단은 ‘드론조종·조립·정비 전문기 양성교육’을 위한 교육생 60명을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1차 4월17일부터 6월16일까지 하루 8시간 총 320시간(총 8주) 진행되며, 2차는 6월26일부터 8월18일까지다. /목포=김준석기자 kjs0533@

용해동 도심 공동화 해소되나

옛 법원·검찰 부지에 행복주택 400여세대 건립

지난 2011년 옛 광주지법 목포지원과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이전한데 이어 오는 7월 목포경찰서 이전까지 겹쳐 극심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목포시 용해동 일대의 부지 활용 방안이 알려지면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목포시는 “최근 시정 질의 답변에서 용해동 옛 법원·검찰 부지 1만600여㎡(3200평)에 LH에서 행복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LH는 오는 5월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오는 12월 공사에 들어가 2019년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는 23.1㎡, 29.7㎡, 42.9㎡ 규모의 소형아파트 400여 세대가 건립된다. /목포=임영준기자 lyc@

목포시는 또 오는 7월 목포경찰서 이전에 따른 공동화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 라면서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옛 법원·검찰 부지와 목포경찰서 사이에 위치한 용해2단지 아파트도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목포시는 최근 고시를 통해 용해2단지 주택재건축사업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및 지정도면을公示했다. 이에 따르면 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관광 약자’ 지원 조례 제정

목포시의회 제332회 임시회에서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 가결돼 앞으로 관광약자들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조례에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확충을 비롯해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관광환경 조성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 등 6가지 규정이 담겼다.

이에 따라 목포시장은 앞으로 관광약자(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관광약자를 위해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도 가능해진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귀선 목포시의회 의원은 “관광약자들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해 관광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체 010-3600-9955

NAVER 주소(D) 대신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물, 모방물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